

'나노입자 개발' 세계 학계 이목집중

전북대 김대운 박사 연구 LCD 제조 원가절감 획기적 세계저널 표지논문 게재



김대운 박사

전북대학교 김대운 박사(고분자나노공학과·지도교수 정광운)가 LCD TV 제조 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연구원은 LCD TV를 제조할 때

필요한 배향막 처리 공정 없이 대면적에서 액정의 수직 배열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해 재료 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스몰'(Small, IF=8.643, TOP=7.091%)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 성과는 2018년 1월의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배향막이란 LCD의 액정이 외부 전압에 의해 움직일 때 규칙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번 연구는 김 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유기 화합물을 액정에 소량만 첨가하여 자동으로 수직배향을 유도한 것. LCD TV 제조시 배향막 코팅 공정 단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온의 소성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에 약한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플렉서블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인력양성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김대운 연구원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오는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또한 3월부터 미국의 MIT 재료공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연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최근 독일의 인터스트리 4.0의 선두주자인 글로벌 기업 '지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기계공고 - 독일지멘스사 '맞손' | 자동화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실무인재 양성위한 업무협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위성욱)는 최근 독일의 인터스트리 4.0의 선두주자인 글로벌 기업 '지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SMSCP(Siemens Mechatronic Systems Certification Program)'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

했다. 'SMSCP'는 지멘스사에서 축적한 자동화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자동화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자격 LEVEL 1'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자동화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영어로 진행되어 어학능력 향상과 240시간 전공교육을 통한 실무인재가 양성 된다. SMSCP교육을 위해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2017년 3월부터 강사 집중교육 및 트레이닝 센터 구축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축해 온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멘스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근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새내기 모집

오늘부터 26일까지 전라중 교무실에 직접 접수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2018 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중학교 입

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자한 사람이다. 만16세 이상, 무시험전형이며 지역 제한없이 연장자순으로 모집한다.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북지역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입학원서와 여권용 사진,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중학교 입학자격 검정

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전라중학교 교무실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후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출석 수업은 격주 토요일에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중 교무실 063-252-2759로 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 책임진다

전주시, 검진서비스 실시 9세~24세 누구나 무료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또 상담과 진찰, 혈액검사, 구강검

진 등 17개 항목의 기본검진과 감염성 질환 및 산부인과 등 3개 항목의 추가검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진항목 중 간염 검사가 기본 검진으로 변경돼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항목을 수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9세 이상~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경우 특례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를 방문해 검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호원대 취업률 75% 달성... 전국 최상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취업률 75.0%(2016년 12월 31일 조사기준)를 달성해 3년 연속 취업률 최우수대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12월 28일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제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원대의 취업률은 75.0%로, 전국 대학 취업률보다 7.3%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4년제 대학 취업률 64.3%와 전북지역 취업률 64.3%보다도 10.7%p 이상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원대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공학계열 70.3%, 예체능계열 84.0%, 인문사회계열 69.6%, 자연계열 78.7% 등 모든 계열에서 4년제 대학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호원대는 2016년 취업률 77.7%를 기록했으며 2015년 취업률 75.0%로,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편, 호원대학교의 정시모집은 6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 모집단위에서 군별 상관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와 행복한 교육

해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